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닭?!



지난 9월 16일 방송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집 근처 공원으로 출퇴근하는 닭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10여 마리의 닭들은 매일아침 빠뜨리지 않고 공원으로 가곤 한다. 공원까지는 사람의 걸음으로 5분 정도 걸리지만 닭의 걸음으로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 만만치 않은 거리다.

닭들이 구불구불 골목길이 복잡하게 연결된 것도 모자라 차가 썩썩 달리는 도로도 건너야 하는 어려운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공원에는 지렁이나 벌레 등 닭들의 먹이가 풍부할 뿐 아니라 닭이 목욕할 때 꼭 필요한 모래도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닭의 주인은 “병아리 때부터 좁은 닭장에만 두면 답답할까 싶어 매일 바구니에 넣어 집 근처 공원에 데려가곤 했는데 길이 익숙해졌는지 어느 날부터 공원을 찾아갔다”며 “그리고 암탉을 만나 병아리를 낳자, 모두를 끌고 공원으로 다니기 시작했다. 무식한 사람을 닭머리라고 놀리는데, 애네 들은 똑똑한 닭이다”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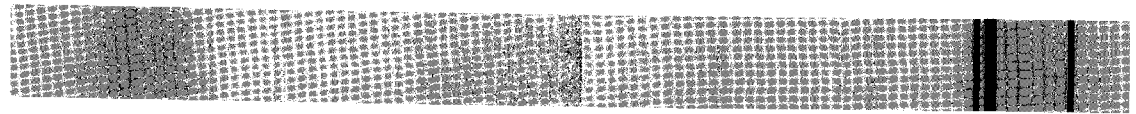
- tvreport.co.kr

북한

평양에서 퇴근길엔 ‘닭발에 선술 한잔’ 인기

북한 평양에도 요즘엔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 ‘선술집’에 들러 닭발튀김이나 닭꼬치구이를 안주삼아 한잔 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9월 3일 “최근 평양에서 닭발,



닭내장 같은 닭 부산물로 만든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루 업무를 마친 근로자들이 많이 들르는 ‘광복결혼식 식당’의 경우 이런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는 손님이 매일 수백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평양 기초식품공장에서 일하는 김달수(40)씨는 “퇴근할 때 이곳에 들러 닭 부산물 요리를 안주로 선술을 한잔 하면 하루 일의 피로가 가신다”고 말했다.

평양 만경대구역에 있는 이 식당은 원래 결혼식장을 겸한 피로연 전문식당이었는데 퇴근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닭 부산물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현재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만 결혼식 및 피로연 장소를 제공한다

이 식당에서 파는 다양한 닭 부산물 요리 중 가장 인기 높은 메뉴는 감자 녹말가루를 묻힌 닭발에 소금과 조미료를 뿌려 튀기는 ‘닭발쪽튀기’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신보는 “최근 들어 닭공장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요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거래하나운동본부

중국

美 닭제품에 최대 105%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를 통해 “미국에서 수입한 닭 제품이 덤핑으로 판매돼 중국의 국내 관련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면서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덤핑조사에 응한 미국산 구이용 닭과 닭 제품의 수입업자는 50.3~53.4%의 관세를 내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에는 105.4%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덤핑 관세는 닭의 부위별 제품이나 전체 제품에 매겨지지만 생닭 혹은 닭 소시지 같은 조리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인은 거의 먹지 않지만 중국 남부지방에선 별미로 인기 있는 닭발도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14일 중국 목축업협회가 반덤핑 조사 청구를 해옴에 따라 9월 27일 공고를 내고 조사에 착수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미국산 닭 제품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4% 증가하면서 중국의 관련 산업은 10억9000만 위안(1억627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이는 2008년 1년 동안의 전체 손실액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받은 닭 제품이 중국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68.64%에서 2009년 상반기 89.24%로 급증

했다. 또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2006년 7.04%에서 2009년 상반기 10.96%로 늘어났다.

중국 목축업협회 마창(馬鬮) 부비서장은 “반덤핑 조사 신청은 미국 제품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중국 국내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근 위안화 절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는 쇠파이프, 종이, 영화, 도서 등의 제품에서도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 국민일보

‘닭을 갖고 튀어라’ 닭차사고에 도로 ‘이수리장’



“도망치는 닭, 잡는 사람이 주인?”

닭 2,000여 마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하자 혼란을 틈타 닭들이 도로로 빠져나오고 이를

훔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중국 산시성 시안의 한 고속도로에서 지난 9월 26일 오전 7시(현지시간)께 운전자 왕 씨가 모는 대형트럭이 짙은 안개 속에서 6중 추

돌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의 운전자 및 탑승자 중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왕씨의 트럭은 크게 파손됐다. 트럭에 실은 닭 2,000마리 중 700마리가 죽었고 300마리는 도로로 빠져나왔다.

닭들이 도로에 밀려나오면서 이 일대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졌다. 옆천 데 덮친 격으로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다짜고짜 닭을 훔쳐 달아나 혼란을 더했다.

도망치는 닭들을 잡아 사고현장을 수습하려는 경찰관들과 이 틈을 노려 닭을 훔치려는 주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고 사고수습은 2시간 넘게 이뤄질 수 없었다.

운전자 왕씨는 “닭 수백 마리를 잃고 트럭이 망가진 것도 안타까웠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나마 산 닭들을 가방에 넣고 도망가서 허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중국 언론매체에 따르면 왕 씨는 다 키운 닭들을 시장에 팔러 가는 중이었다. 약 3kg 정도인 닭은 한 마리당 50위안(한화 약 8,000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나우뉴스

2015년까지 옥수수 수입량 현재 10배로 증가

일본 마루베니(MARUBENI CORPORATION) 사 산하 연구기구인 마루베니 경제연구소는 세계 2위의 옥수수 소비국인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2015년까지 10배 증가할 전망이라

고 밝혔다.

Akio Shibata 마루베니 경제연구소 수석 대표는 중국의 사료 생산원료가 값이 싼 수입 옥수수로 전환하기에 옥수수 수입량이 현재 100만 톤에서 1,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Shibata 수석대표는 올해 옥수수 수입량을 보면 이미 중국은 옥수수 순수입국이 되었다고 전했다.

- 상하이 aT센터

두 전년의 같은 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고가 높은 수준이었던 전년 동기에 식육회사들이 구매를 억제한 반동증가로의 견해가 많다.

8월의 수입량은 쇠고기가 전년 같은 월에 비해 12% 증가해 4만3,500톤, 돼지고기가 23% 증가해 6만4,500톤이었다.

일본식육수출입협회(도쿄·미나토)에 의하면 8월의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같은 월에 비해 70% 증가의 3만7,000톤을 전망하고 있다.

- 일본경제신문

일본

한국산 닭·오리 고기 수입 금지 해제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산 닭과 오리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닭과 오리고기의 수입을 금지했지만 방역 조치 결과 한국이 청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한국산 닭과 오리 고기를 793톤 수입했다.

- YTN

소·돼지·닭고기 수입량이 대폭 증가

농축산업진흥기구(도쿄·미나토) 등이 정리한 8월의 소, 돼지, 닭고기의 수입량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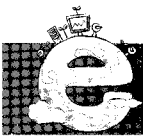
WTO

美,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불법 판결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중국이 오바마 미 행정부를 상대로 얻은 첫 국제통상 승리다.

WTO는 이날 “미국은 중국산 닭 부위가 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상당한 무역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WTO는 무역 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수 년 간의 소송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수입 및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최근 강관, 가금류, 특히, 할리우드 영화 등을 놓고 무역 갈등을 겪고 있다.

- 제네바=AP/뉴시스

필리핀

농림부(DA), 12월까지 닭고기 가격인상 억제키로

현재 닭고기의 과잉공급 상태로 인하여 사육 생산을 줄이기 위한 지역 양계업자의 이동에 따라 농림부(DA)는 12월까지 닭고기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부(DA) 차관보로 새로 임명된 다비니오 캣바간(Davinio Catbagan)은 인터뷰에서 현재 닭고기 공급이 과잉상태이며, 이로 인해 생닭고기의 가격이 kg당 58~62페소인 생산비용보다 낮은 kg당 50~57페소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캣바간(Catbagan)은 일부 지역에서 생닭고기의 가격이 킬로 당 48페소까지 하락했다는 육계연합모금회(the United Broiler Raisers Association)(UBRA)의 주장도 함께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질한 닭고기(내장을 빼고 다듬은 닭)의 가격도 kg당 140~150페소에서 120페소로 하락했다.

그러나 농림부(DA)는 생고기시장 소매업자들이 판매 가격을 kg당 90~110페소로 더욱

낮추어 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양계업자는 현재 시장의 과잉공급 상태에 대한 대책으로 '선적'이나 달걀의 부화를 멈출 것이라고 보고서는 나타내고 있다.

캣바간(Catbagan)은 과잉공급의 원인이 지난해(2009년) MAV(최소시장접근물량) 할당을 통해 사육자와 닭고기의 과잉수입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DA) 수치를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이후로 MAV(최소시장접근물량) 이용은 72%였다.

캣바간(Catbagan)의 말에 따르면 연도별 MAV(최소시장접근물량) 할당은 23,590,000 킬로이다. 캣바간(Catbagan)은 작년 전체의 MAV 할당 사용률이 92%였으며, 600만 kg의 닭고기가 냉동 보관 시설에 있다고 말했다. UBRA의 사장인 그레고리오 산 디에고(Gregorio San Diego)는 지난해 창고에 있던 300만의 두 배 이상인 650만의 양이 냉동 저장고에 있다는 수치를 언급했다.

농림부(DA)는 지역양계산업의 지도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양계 생산과 MAV 할당을 관리하여 12월까지 현재의 생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과잉공급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팅을 가졌다. 

- www.philstar.com